

전기공업의 현황과 '95 정책방향



商 工 資 源 部
電 機 工 業 課 長
李 愚 公

우리나라의 電機工業이 100년이란 역사를 뒤로하고 선진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政府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企業을 이끌어 가고있는 電機工業人들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하겠다.

지난날의 국내 電機工業 시장은 대체로 70년대 이전과 80년대 이전 그리고 80년 이후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면 70년대 이전은 주로 基礎技術에 의존하면서 技術跳躍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보이며 80년대 이전은 高級技術로의 성장단계로 볼 수가 있고 90년대까지는 技術의 고도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90년대는 技術의 급속한 발달로 한치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초고도 技術이 1년이 멀다하고 등장 하므로서 尖端技術의 새로운 競爭時代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國家競爭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우리기업들을 국제적 경쟁계도에 올려놓는데 成功하였지만 경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여 왔고 技術開發 보다는 技術導入에 의존한 모방적 生産을 하여 왔기 때문에 技術能力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에 있으며, 제품의 품질도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環境은 우리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國際化 政策은 이제 막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달리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 마치 해비급 권투선수와 플라이급 권투선수를 한링에 올려놓고 싸움을 붙이는 것 처럼 상대도 되지않는 우리에게 開放과 競爭의 압력을 가해오고 있어 政府의 새로운 政策變化와 企業의 획기적인 意識變化 없이는 선진국들과의 競爭은 고사하고 머지않

아 우리 國內市場까지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으며 더욱이 우리보다 뒤떨어진 開發途上國들도 열심히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어 현상태로 가다가는 후진국들에게도 우리자리를 내놓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UR이란 國際的 파동으로 우리기업도 발가벗고 國內外에서 世界유수기업과 競爭을 하여야 하며, 또 이제 막 서막이 오르고 있는 그린라운드나 블루라운드도 가까운 장래에 선진국들의 압력이 밀려올 것이고, 또 더이상 政府가 企業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제 企業 스스로가 競爭力을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技術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電機技術과 전자·전력기술이 접목되어 電機技術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電機機器가 소형화, 고성능화 및 전자화 되어 가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과의 접목으로 시스템화 되는 등 電機工業의 技術이 새롭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世界 굴지의 電機 메이커들이 世界市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 합작, 연합, 업종전문화 등 다각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구해 가면서 世界市場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電機業體들은 國內市場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덤핑경쟁으로 우리 電機業體 스스로가 自繩自縛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 電機業體끼리 치열한 덤핑경쟁을 하고있어 業體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通商産業部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우리企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技術輸入國에서 技術輸出國으로 변모하기 위해 政府의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해 가면서 企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電機工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수입 다변화 품목 및 단체수의 계약 품목의 縮小, 조정관세 수혜품의 縮小 또는 조정 그리고 技術開發費 및 설비자금의 縮小 등 각종 수혜범위를 점진적 縮小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기업과의 계열화 體制를 강화하고 생산전문화 業體로의 전환, 민간 技術開發 기금의

확보, 산·학·연 共同 技術開發體制 확립, 공장입지의 조성공급, 技術人力의 양성 및 지원, 세계지원 등 종합적인 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電機工業 분야도 그동안 政府의 지원과 보호 아래 착실한 成長을 계속하여 지난해에는 총 시장규모가 약 87억불에 달하였으며 생산규모도 63억불에 이르렀으나 輸入이 25억불이나 되어 아직도 內需市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技術能力도 미흡 할 뿐만 아니라 主要技術이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技術開發 의지도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總輸出額은 822억불이었고 그중 전기, 전자부문이 247억불 이었으며 전기공업부분은 14억불로서 總輸出額의 1.7%에 불과하며 전기·전자 輸出額의 5.7%에 불과 하였고 輸入에 있어서는 總輸入額의 2.6%를 점유하여 규모면에서 타 산업에 비교가 안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어 電機工業은 규모면에서나 輸出入 면에서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 화학공업 등 모든 工業에 밀려 工業부문에서 電機工業의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는 사실을 電機工業人들은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전기인들은 저마다 電機工業이 모든 工業의 기초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엄연한 現實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처지를 우리는 엄숙히 받아 들이면서 이것을 反省과 跳躍의 기회로 삼아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政府가 企業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電氣機器 분야는 개개의 企業이 혼자서 뛰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電氣機器産業은 대량생산 보다는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대 電氣機器 業體들이 합병이나 연합을 하는 것 처럼 우리企業들도 국내외에서 出血競爭을 하기 보다는 企業의 윤리를 살리고 필요에 따라 합병이나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世界 유수기업들과의 競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通商産業部는 90년대의 급변하는 국내외적 狀況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2천년대에 우리나라 電機工業을 世界 8위권 이내로 끌어올리며, 우리나라를 世界 機器의 생산거점화 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基礎를 다져갈 基本戰略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電機工業 發展戰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립된 전략이 제도개선 등 미약한 戰略에 그쳤으며 政策의 큰 줄기가 없었던 것이 電機工業의 發展을 지연 시키거나 또는 주요시책을 펴 나아가지 못하였던 原因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基本戰略이 수립되면 분야별·품목별 세부 실천계획도 수립하여 육성해야 할 것은 온 힘을 기울여 育成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서 業種의 競爭力과 品目の 競爭力을 높여 나아가도록 電機人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것이다.

基本戰略에 포함될 내용은 국내외 電機工業의 동향과 정책방향, 전체공업중 電機工業의 위치, 技術水準 및 技術開發 현황, 우리나라 電機工業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그리고 電機工業의 發展을 위한 분야별 戰略이 담겨질 것이다.

새해에는 앞서 언급한 “2천년대를 향한 重電機器 發展戰略”을 수립해 가면서 電機工業의 기반구축을 위한 주요시책을 펴 나아가고자 한다.

첫째로 電機工業의 技術開發을 위한 기금의 확보로서 2천년까지 5백억원의 技術開發 기금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년에는 일차적으로 17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技術開發기금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技術開發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기진흥회 내에 “技術開發기금 운용위원회”를 設置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산·학·연·수요기관·政府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첨단 技術開發 제품의 開發유도와 輸出 유망품목의 技術開發 촉진을 위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技術開發 제품과 輸出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육성하고 開發제품의 상용화 지원과 開發商品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며 특히 輸出 유망품목은 우선적으로 技術開發를 주력해 가는 것이다.

넷째, 企業의 技術開發 의욕고취를 위하여 新開發 產品의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開發된 產品의 보급확대를 위한 電氣 및 消防關係法令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政府가 수요기관에 대해 使用을 권고하며, 國產開發產品의 사전시험제도 개선과 輸入產品의 시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품의 원가절감 및 品質향상을 위하여 각종 배전반·제어반 및 원방감시설비의 標準化事業을 추진하고 발전설비의 제어카드 국산화 및 배전반 자동화를 추진하며 全產業體의 ISO 9000 시리즈의 획득을 적극 유도해 가는 것이다.

여섯째, 생산활동 지원과 技術人力 양성을 위하여 22.9kV급 배전선로 실증시험장의 建設을 계속 추진하고 500MVA급 단락시험설비의 設置工事を 시작하며 電氣分野 기능공 훈련센터 建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業體의 지원을 위한 電機工業振興會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국내외 市場情報과 技術開發情報의 신속입수 및 전파를 위한 기능, 技術開發 기금과 技術開發課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 및 業體의 技術開發 지원 및 技術支援(인력 및 자료)을 위한 기능 등 이러한 분야의 기능과 조직을 신설·보강하는 것이다.

여덟째, 電氣關聯組合의 競爭力 향상과 製品의 品質향상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分配式 배정방식을 탈피하고 競爭方式을 도입하며 多輸出業體와 品質優秀業體에 물량배정의 수혜폭을 확대하고

아홉째, 우수業體와 우수人力의 사기振作을 위하여 技術開發이나 신상품을 開發한 우수業體나 우수人力에 대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포상을 확대하고, 技術開發 자금과 施設자금의 우선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열번째는 業體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하여 電機工業振興會내에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애로사항은 電機振興會와 通商産業部 電機工業課가 공동으로 해결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電機工業 시책을 제대로 펴 나아갈때 우리 電機工業界도 보다 성장·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重電機器 發展戰略 수립과 금년도의 電機工業 시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業界를 비롯한 모든 電氣關聯機關이 합심하여 참여하고 또 도와주기를 바랄 뿐 이다.